| 국어는 이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파이널Ⅱ 제5차 예비평가 정답과 해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5차 예비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형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③	2	18	③	2	35	②	2	35	②	2
2	③	2	19	①	2	36	②	2	36	②	2
3	②	3	20	③	2	37	④	2	37	③	2
4	④	2	21	③	3	38	⑤	2	38	④	2
5	⑤	2	22	⑤	2	39	③	2	39	①	3
6	②	2	23	①	2	40	①	3	40	④	2
7	②	2	24	⑤	2	41	①	2	41	③	2
8	①	3	25	⑤	2	42	④	2	42	③	2
9	④	2	26	③	3	43	②	2	43	④	3
10	⑤	2	27	①	2	44	②	3	44	⑤	2
11	①	2	28	⑤	2	45	⑤	2	45	④	2
12	①	2	29	④	2						
13	④	3	30	⑤	3						
14	①	2	31	④	2						
15	④	2	32	②	2						
16	①	3	33	②	2						
17	②	2	34	⑤	3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5차 예비평가 해설

• 공통과목 •

[1 ~ 3] 독서론

1.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독서 과정을 적절히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통합된 정보들을 기억하기 쉽게 요약하거나 정리하는 것은 미시 독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시 독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거시 독해 과정을 충실히 하면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정리되어 읽은 것을 기억하기 쉬워지며, 세부 내용을 떠올릴 수 있는 연결 고리도 확보된다. ② 정교화 과정에서는 독자가 배경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 ④ 5개의 독서 과정들은 일정한 순서를 따르지 않고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⑤ 독자가 자신의 독해 상태를 인지하는 것은 메타 인지 과정에 해당하는데, 메타 인지는 독서 과정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출제의도] 독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통합된 정보를 정리하는 것은 거시 독해 과정에 해당하며, 문장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통합 과정에 해당한다. 통합된 정보를 정리하면서 문장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또 다른 정보 통합에 활용하는 것은, 정보 통합 후의 거시 독해 과정이 다시 통합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독서 과정 간의 상호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단어들을 끊어 읽어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미시 독해 과정에만 해당될 뿐, 독서 과정 간의 상호 작용이 아니다. ② 글의 내용에 정서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지하는 것은 정교화 과정에만 해당될 뿐, 독서 과정 간의 상호 작용이 아니다. ④ 배경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고 글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정교화 과정에 해당될 뿐, 독서 과정 간의 상호 작용이 아니다. 또한 추론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윗글에 언급된 내용도 아니다. ⑤ 배경지식이 부족한지의 여부 등 자신의 독서 상황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은 메타 인지 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일 뿐, 독서 과정 간의 상호 작용이 아니다.

3.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의 독서 방법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가)는 글자, 구절, 단락, 권으로 범주가 커지더라도 독서 과정에서 낱낱의 정밀함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나)는 글을 읽을 때 의심을 할 수 있어야 책에서 얻을 것이 생기며 독서 진행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정답풀이] '낱낱의 정밀함에 힘'쓰는 것은 각 부분을 꼼꼼하게 읽는 방법이므로 통합된 여러 정보를 유기적으로 정리하며 읽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낱낱의 정밀함에 힘'쓰는 것은 한 권을 읽으면서도 세밀한 각 부분에 충실한 것으로, 책 한 권을 미시 독해의 방법으로 읽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각 구절의 의미를 세세히 따져 보는 것은 문장 단위를 면밀하게 읽는 미시 독해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④ 독자가 의문을 갖고 반응하는 것이 정교화 과정임을 감안하면, '의심'을 하는 것은 정교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태도와 유사하다. 정교화 과정을 비롯한 5개의 독서 과정은 독자가 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⑤ 의심의 유무를 통해 독서가 잘 진행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독서할 때 자신의 인지적 작용 자체를 파악하는 메타 인지 과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4 ~ 9] 사회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243쪽, 수능특강 277쪽**

4. [출제의도] 두 지문의 전개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청바지라는 특정 소재를 매개로 하여 대중의 정체성과 대중문화에 대한 피스크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는 대중문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나, 대중문화가 발전해 온 역사적 과정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는 대중문화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을 소개하고 있다. 한쪽의 시각이 다른 쪽으로 바뀐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③ (나)는 대중이 대중문화를 창출하는 주체임을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대중문화를 창출하는 여러 방법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와 (나)는 상품으로서의 대중문화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으며 대중문화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5.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피스크는 대중의 대다수가 청바지를 즐겨 입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로부터 청바지를 입는 대중의 정체성을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청바지를 입는다는 점을 통해 모든 대중을 관통하는 어떤 동질적 특성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중이 특정 사회학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대중문화는 각종 매체를 통해 대량 생산되어 소비되는 문화이기도 하고, 상품 소비와 맞물려 대중이 향유하는 문화이기도 하다. ② 리비스주의는 고급문화만을 진정한 문화로 여겨서 대중문화를 무질서하고 야만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③ 프랑크푸르트학파는 여가 시간과 같은 일상생활도 문화 산업에 의해 획일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④ 프랑크푸르트학파는 대중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화 상품을 수동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문화 산업은 대중이 마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여 대중을 기만한다.

6.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두 개념을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서 구조)은 특정 집단에서 공유되는 감정의 집합이므로 이미 형성된 집단이나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감정이나 마음을 공유하는 집단 혹은 공동체를 새롭게 형성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사회적 충성)은 수많은 종류의 청바지들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나 특정 가수에 대한 팬 문화가 형성되는 경우 등에 작용하는 대중의 마음이다. 대중이 각자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지만, 같은 것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충성하는 마음으로 선호를 공유하는 사회적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은 감정이나 마음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은 집단의 신념 체계처럼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 또한 한시적인 속성을 띤다. 따라서 둘은 모두 시대를 초월하여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다. ③ 대중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서 구조를 바탕으로 그 나름의 미적 감각을 끊임없이 만든다는 윌리엄스의 견해로 볼 때, ㉠은 미적 감각을 낳는 역할을 한다. ④ 인간은 감관을 통해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해석한다는 윌리엄스의 견해로 볼 때, 인간이 외부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형성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⑤ 피스크에 따르면 ㉡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대중은 문화 자원들 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연결 고리를 찾아내므로 대중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의 문화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은 별다른 문화 자원 없이도 공동의 문화를 창출한다는 윌리엄스의 견해로 볼 때 ㉠이 문화 창출을 위해 반드시 기존의 문화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7.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관점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피스크에 따르면, 대중은 유관성을 기준으로 선택하는데, 이는 지속적이면서도 분명한 판단 기준이 아니다. 오히려 대중은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유관성을 바탕으로 문화의 진정한 주체가 된다.

[오답풀이] ① 피스크에 따르면, 대중의 정체성은 계층, 인종, 연령 등 사회학적 범주에 관한 용어로는 규정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③ 피스크에 따르면, 대중은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구에 대응하는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욕구에 대응하는 물체나 기호를 만들기 위해 손수 여러 재료나 자원을 결합하는 일상의 실천인 브리콜라주와 같다. ④ 피스크에 따르면, 어떤 초고가의 청바지를 구매하는 경우처럼 대중적인 청바지가 아니라 고급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계층적 차별성을 드러낸다. ⑤ 문화의 주체인 대중의 힘으로 사회 변화를 추동한 다수의 사례들을 통해, 대중의 문화 소비가 그저 현실 도피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피스크의 관점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8.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문화 산업에 대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견해가 상술되어 있다. 그들에 따르면 대중은 동질화되어 있는 문화 상품에 동화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욕구마저도 문화 산업에 의해 규정된다. 한편 대중이 소비하는 상품은 변화 없는 반복에 불과하며, 여가 시간의 유흥은 추후 노동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역시 일의 연장에 불과하다.

[정답풀이] [A]의 윌리엄스는 대중이 문화 창출의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자본주의의 이념적 측면이 대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이념적 측면의 영향에 대한 [A]의 입장이, 자본주의에서 문화가 대중을 동질화시킨다는 분석과 상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② [A]에 따르면 대중이 공유하는 감정의 집합인 정서 구조는 문화를 창출하는 능동적 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점을 활용하여 대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중의 욕구마저 문화 산업에 의해 규정된다는 <보기>의 지적을 반박할 수 있다. ③(나)는 수동적인 소비자들에 의해 대량의 상품이 소비되는 차원의 문화 개념인 대량 문화와 창조적인 대중에 의해 형성되는 문화 개념인 대중문화를 구분하고 있다. <보기>에서 대중이 즐기는 오락물이 변화 없는 반복이라는 인식은 (나)에서 언급한 대량 문화의 개념으로 문화를 바라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나)에서 대중은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유관성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대중이 문화 상품에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보기>의 분석은, (나)에 제시된 입장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나)에 따르면 대중은 일상적 차원에서도 자신의 문화를 자발적으로 만들어 가는 브리콜라주와 같은 실천적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흥'이라는 일상적 행위가 일을 위한 것 내지 일의 연장밖에 될 수 없다는 <보기>의 생각은 (나)의 관점으로 반박될 수 있다.

9.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보다'는 '대상을 평가하다.'의 의미이다. '우리는 그 일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다.'의 '보다' 또한 이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10～13] 인문

10.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관찰 결과는 거의 필연적으로 오류를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주어진 모든 관찰 결과들에 완전히 부합하는 가설은 '과도한 부합'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답풀이] ①곡선의 종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식에 매개 변수가 그대로 나타나 있어야 한다. 반면에 매개 변수들에 계수가 대입된 식은 개별 곡선을 표현한다. ②'존재론적 검약성'은 가설이 동원하고 있는 개별 존재자들의 수가 아니라 존재자의 종류의 개수가 적다는 의미이다. ③고대 이래로 과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설이 동일한 정도로 현상에 부합한다면 단순한 가설이 복잡한 가설보다 진리에 더 가깝다는 단순성의 원리, 즉 오늘날 '오컴의 면도날'이라 일컬어지는 원리를 믿었다. ④포물선을 표현하는 식의 매개 변수는 3개이고, 직선을 표현하는 식의 매개 변수는 2개이다.

11.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특정 상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소버에 따르면 기체의 온도와 압력에 관한 각각의 관찰 결과의 점들에는 거의 필연적으로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오답풀이] ②소버에 따르면 기체의 온도와 압력에 관한 곡선들 중 관찰 결과에 최대한 부합하는 곡선이 아니라 관찰 결과에 근접하는 단순한 곡선, 즉 직선이 진리에 더 가깝다. ③소버에 따르면 곡선에 관한 매개 변수의 개수는 곡선 종류가 어떤 것인지, 즉 포물선인지 직선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좌표상의 점들은 관찰 결과의 점들로 매개 변수의 개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④현대 철학자들에 따르면 단순한 곡선이 진리에 가깝다. 그런데 진리에 가까운 곡선은 점들에 근접할 뿐인 것이다. 모든 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다. ⑤'관찰 결과에 곡선 맞추기' 상황은 현대 철학자들이 가설의 단순성을 '구문론적 단순성'에 한정한 후에, 단순성을 규정하고 단순성 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상황이다.

12. [출제의도] 지문에서 소개된 특정 개념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소버에 따르면 경쟁하는 가설의 종류들 중 예측적 정확성이 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상황에 따라 복잡성의 값이 큰 것이 선택될 수 있을지언정 예측적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선택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②예측적 정확성의 기준에 따르면 가설의 종류 중 예측적 정확성이 큰 것이 진리에 더 가깝다. ③예측적 정확성은 '관찰 결과에 잘 부합함'의 성질이 큰 것일 때 크며, 복잡성의 값이 작을 때, 즉 단순성이 클 때 크다. 즉 두 성질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④예측적 정확성은 관찰 결과가 주어질 때마다 그에 맞춰 매개 변수에 계수를 조정해 넣으며 개별적인 최적 가설인 L(F)들을 얻은 후, 이 L(F)들을 통한 앞으로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고려하여 구한다. 즉 예측적 정확성은 주어진 관찰 결과들에 따라 계수를 조정하므로 개별적인 최적 가설이 조금씩 바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개념이다. ⑤예측적 정확성은 현재까지의 관찰 결과에 따른 최적 가설인 $L_1(F)$의 가능도가 클수록, 가설 종류의 단순성이 클수록 크다.

13.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이 제안된 당시에는, 이 가설과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이 그때까지의 관찰 결과에 거의 동일한 정도로 부합하였다. 단순성의 원리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태양 중심설을 선택하는 것이 진리에 더 가까운 가설을 선택하는 것이다.

[정답풀이] 태양 중심설이 제안된 당시에는 지구 중심설의 반증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고 두 가설은 관찰 결과에 거의 동일한 정도로 부합한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단순성의 원리를 믿은 당시의 과학자는 지구 중심설을 포기하고 태양 중심설을 선택했을 것이다. 단순성의 원리에 따르면 두 가설이 동일한 정도로 현상에 부합한다면 단순한 가설이 복잡한 가설보다 진리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프톨레마이오스는 12개의 원 궤도들을 가정한 가설을, 코페르니쿠스는 7개의 원 궤도들을 가정한 가설을 선택했다. 이들은 행성들의 운행을 설명하기 위해, 관찰 결과를 참조하여 최적의 가설을 결정했을 것이다. ②지구 중심설을 표현하는 가설의 종류는 12개의 원 궤도들을 가정하므로, 7개의 원 궤도들을 가정하는 태양 중심설의 가설의 종류보다 매개 변수를 15개 더 포함하고 있다. 소버의 단순성 규정에 따르면, 복잡성의 값이 더 작은 태양 중심설이 지구 중심설보다 더 단순하다. ③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이 관측 자료에 거의 동일한 정도로 부합한다는 것은 태양 중심설이 제안된 당시의 관찰 자료에 따른 태양 중심설의 최적 가설의 가능도가 지구 중심설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잡성 값이 15만큼 더 큰 지구 중심설이 태양 중심설과 동일한 예측적 정확성을 가지려면 당시 관찰 자료에 따른 지구 중심설의 최적 가설의 가능도가 태양 중심설의 그것보다 2.7의 15제곱 배 커야 하지만, 실은 서로 비슷하다는 사실로 보아 태양 중심설이 지구 중심설보다 진리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복잡성 값이 n만큼 클 때에는 $L_1(F)$의 가능도가 약 2.7의 n제곱 배만큼 커야 동일한 예측적 정확성을 지닐 수 있다. 따라서 복잡성 값이 15만큼 큰 지구 중심설이 태양 중심설과 동일한 예측적 정확성을 가지려면 당시 관찰 자료에 따른 최적 가설의 가능도가 태양 중심설의 그것보다 2.7의 15제곱 배 커야 한다.

[14～17] 과학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31쪽

14.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특정 대상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를 담고 있는 소포체는 시냅스 전막 안쪽에 존재하는데, 축삭 돌기 말단의 세포막인 시냅스 전막은 정보를 전달받는 부위가 아니라 정보를 다른 신경 세포로 전달하는 부위이다.

[오답풀이] ②대뇌를 구성하는 신경 세포는 중심부인 세포체에서 가지 돌기와 축삭 돌기가 뻗어 나온 구조를 띤다. ③전두엽의 신경 세포들에는 장기 기억이 저장되고 이 신경 세포들에 전류가 흐를 때 장기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④한 신경 세포의 축삭 돌기와 인접한 다른 신경 세포의 가지 돌기는 미세한 간극인 시냅스를 사이에 두고 있다. ⑤신경 세포들 간의 정보 전달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축삭 돌기 말단에서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를 가로질러 이동한 뒤 다른 신경 세포의 가지 돌기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5.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개념들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장기 기억은 전두엽 신경 세포들에서 새롭게 생성된 가지 돌기와 축삭 돌기 말단이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함에 따라 저장된다. 따라서 이렇게 신경 세포들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 저장되는 장기 기억은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단기 기억은 해마 신경 세포들 사이에서의 글루타메이트의 작용에 의해 짧은 시간 동안 저장되며, 이러한 글루타메이트의 작용은 시냅스 후막에서 방출되어 시냅스 전막을 자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일산화 질소의 작용에 의해 사라진다.

[오답풀이] ①단기 기억은 칼슘 양이온들이 시냅스 전막에 분포된 칼슘 통로로 빠져나감에 따라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 세포들 사이의 외부 빈 공간에 있던 칼슘 양이온들이 막 내부로 이동함에 따라 저장된다. ②장기 기억이 저장되는 과정에서 특정 유전자의 발현이 유도되지만, 이 과정에서 PKA 효소에 인산이 직접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PKA 효소는 단백질에 인산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③단기 기억으로 저장된 정보에 주의가 집중될 때 그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 그리고 특정 정보가 단기 기억으로 저장되기 위해서는 해마에서 많은 글루타메이트가 방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마에서 글루타메이트가 원활하게 방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정보가 단기 기억으로 저장되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 해당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지도 못할 것이다. ⑤새롭게 형성된 시냅스들로 인해 신경 세포들 사이의 연결 방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 저장되는 것은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6.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상 사례에 대해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는 두 환자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전두엽에서 도파민이 과잉 방출되는 것이 원인인 A의 경우에는 과잉 방출된 도파민이 해마에서 글루타메이트와 NMDA 수용체 사이의 결합을 방해해서 단기 기억에 문제가 생긴 것임을, 도파민 방출량이 부족한 것이 원인인 B의 경우에는 전두엽에서 PKA 효소의 합성이 저해되어 장기 기억에 문제가 생긴 것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풀이] 전두엽에서 도파민이 과잉 방출되는 A는 해마에서 글루타메이트와 NMDA 수용체 사이의 결합이 저해되어 단기 기억에 장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단기 기억들 중 주의가 집중된 것들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될 수 있으므로, 단기 기억에 장애가 있는 A는 장기 기억 역시 잘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오답풀이] ② A가 약물을 복용하면 전두엽에서 도파민 방출량이 감소하면서 정상화될 것이고, 그 결과 해마에서 글루타메이트와 NMDA 수용체 사이의 결합 역시 원활해질 것이다. 그런데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도 글루타메이트가 NMDA 수용체 외의 다른 수용체들과는 결합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므로, 복용 후에 글루타메이트가 NMDA 수용체 이외의 수용체와도 결합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도파민의 농도가 충분히 높지 않을 때 장기 기억과 관련된 PKA 효소가 잘 합성되지 않는 것은 맞다. 하지만 PKA 효소가 합성되는 위치는 측두엽의 해마가 아니라 전두엽이다. ④ B가 약물을 복용하면 도파민 방출량이 증가하여 정상화될 것이고, 그 결과 단기 기억에 주의를 집중할 때 도파민이 적당히 방출될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 새로운 축삭 돌기 말단이 생성되는 것은 도파민을 방출하는 신경 세포, 즉 해마에 세포체를 둔 신경 세포들에서가 아니라 전두엽에 세포체를 둔 신경 세포들에서이다. ⑤ 일산화 질소의 방출로 인해 시냅스 연결이 약화되는 상황은 단기 기억이 사라지는 상황으로, 장애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A와 B가 약물을 복용하여 전두엽에서의 도파민 방출량이 정상화되더라도 여전히 일산화 질소의 방출로 인해 시냅스 연결이 약화되는 상황은 나타날 것이다.

17. [출제의도] 문맥상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도달하다'는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르다.'의 의미이므로, '이르다'로 바꿔 쓸 수 있다.

[18 ~ 21] 고전시가

➔ 연계 지문 : 작자 미상, 「향산별곡」 (수능특강 58쪽)
➔ 이원익, 「고공답주인가」

18. [출제의도] 시구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책임을 묻는 일에서 '생각 없는 종'에 대해서는 일단 제쳐 두겠다는 말이다. 물론 이 말이 그 '종'에게 책임이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종'의 책임 또한 적지 않겠지만, '주인님 탓'이 무엇보다 크고 중요함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주인님'이 화자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서운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농사지을 너른 땅도 있고 농구들도 다 갖추고 있지 않느냐고 물은 것은, '종'들이 '텃밭을 묵'히며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④ 화자는 '주인님 탓이로다'라며 상전의 잘못을 거론하면서도, '내 상전 그르다 하기'에는 '종의 죄 많'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상전'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는 자신의 말대로 한다면 '가도(집안 살림을 하여 가는 방도. 문맥상 여기서는 집안 살림을 의미한다.) 절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19.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표현상 특징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는 앞 시구의 끝 구절이 다음 시구의 첫 구절에 반복되는 연쇄법을 통해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 [B]는 '은덕'과 '은택'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각각 '뫼가 되어 곤륜같이 높아지고', '물이 되어 하해같이 깊어'진다고 시각적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곤륜'은 중국 전설상의 높은 산인 곤륜산을 말한다.)

[오답풀이] ② [A]에 행위의 나열은 나타나지만 이로써 긴박감이 조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B]에서 점층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③ 동일한 연결 어미의 반복은 [A]와 [B]에 모두 나타난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대상에 동질적 속성을 부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④ [A]와 [B] 모두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⑤ [B]의 '높아지고'와 '깊어지면'은 대조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A]에는 대조적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20. [출제의도] 핵심이 되는 시구를 중심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화자는 당쟁에만 열을 올리는 조정의 대신들을 향해 한가한 때에라도 '위국 원려'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나무라고 있다. 이는 나라의 미래까지도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당장의 나랏일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과는 무관하다.

[오답풀이] ① '궁궐 입시 하는 날에 요순 도덕 아뢰신가'는 신하가 궁궐에 들어가 임금을 만날 때 요임금과 순임금의 도덕에 관한 얘기를 아뢰는가 하고 묻는 말이다. 이는 임금이 '요순'과 같은 성군이 될 수 있도록 신하가 이끌어야 한다는 뜻이다. ② '상소 대계 하는 때에 보민 모책 아뢰신가'라는 말은, 신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여 편안히 살 수 있게 하는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함을 환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에 힘쓰지 않고 당쟁에만 열을 올리는 신하들을 화자는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④ 화자는 '당전'을 익혀 '남정북벌', 곧 남쪽의 왜적을 정벌하고 북쪽 오랑캐를 치려 하느냐는 말로 당쟁에 열을 올리는 신하들의 행태를 풍자하면서, 당쟁으로 아무리 치열하게 싸워 봐야 강성한 국가를 만드는 데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생각을 내비치고 있다. ⑤ 화자는 '전자 전손 힘써 하되 병법 잇는다 못 들었네'라는 말로, 조정 신하들이 당쟁과 관련된 일 등은 자손들에게 열심히 전수를 하면서, 정작 나라를 지키고 부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병법' 등을 계승하는 임무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세상 보기 민망하여 여쭈나이다'라는 말은, 신하로서 나라의 어려운 상황과 임금의 잘못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임금에게 간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나)의 '타국 생민 다 오리라'라는 말은, 임금이 백성을 살리는 정치를 하면 우리나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백성들까지 임금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가)는 나라에 닥칠 위기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표현이지만 (나)는 위기에 대한 우려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①, ② <보기>를 참고하면, (가)의 '백여 명 넘'게 있는 '종'이 '텃밭을 묵혔'다는 말이나 '정자 아래 낮잠만 자'고 있다는 말은 수많은 신하들이 나라 살림을 등한시하는 문제 상황을 우의적인 표현으로 비판한 것이다. 한편 (나)의 '나라 의식 입고 먹고 무슨 일들 하시는고'는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도 나라를 위한 일에는 전혀 힘을 쓰지 않는 조정 신하들을 설의적 표현으로 비판한 것이고, '쓸데없'고 '국가에 해될 뿐'이라는 말은 조정 신하들이 당쟁에만 몰두하여 국가에 해를 끼치고 있는 문제 상황을 직설적인 표현으로 드러낸 것이다. ④ '이집 이리되기'라는 말은 나라가 처한 문제적 상황을 가리키는데, 작가는 '뉘 탓'이라는 말로 이러한 문제를 초래한 이가 누구인가를 가려내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이는 책임 소재를 밝힘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나)의 중략 앞부분은 민생을 살피면 '오랑캐'도 두려워할 것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임금에게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죽어 가는 백성 건지소서'라는 말은 임금에 대한 탄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나)의 중략 뒷부분은 '조정에 계신 분네 이내 말씀 들어 보소'라고 시작하여 조정 신하들을 비판하며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권면하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임금과 신하들을 향한 이런 탄원과 권면을 통해 작가는 나라가 바로잡히기를 바라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2 ~ 26] 현대소설 – 희곡 통합

➔ 연계 지문 : 이강백, 「북어 대가리」 (수능특강 238쪽)
➔ 작가 연계 : 양귀자, 「지하 생활자」 (수능특강 184쪽)

22.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사장은 점심을 먹는 도중에 걸려 오는 전화에 대해 '받지 마. 어차피 오늘은 글렀어.'라고 '그'에게 말한다. 따라서 사장이 점심을 먹는 중에도 걸려 오는 전화를 받으며 업무 처리를 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땀에 젖은 머리칼, 세월이 그을려 놓은 검은 얼굴, 후줄근한 옷차림이 배 기사나 문 기사보다 더 나을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사장은 내일부터 새로 출근할 공원들을 다 맞춰 놓고 온 것인지도 몰랐다.'라는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출제의도] 특정 구절의 서술 효과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슈퍼마켓의 창고가 공장으로 쓰이게 된 상황의 경위에 대해 서술자가 직접 설명한 대목으로, 인용과는 무관하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오답풀이] ④ ㉣은 '칼을 내려놓'는 행동 묘사를 통해, 일을 할까 말까 망설이던 '그'가 동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⑤ ㉤은 '3시'라는 시간적 상황을, 파업 상황에서 사장과 단둘이 남은 '그'가 느끼는 불편한 마음과 결부하여, 시간이 더디 가는 듯 느끼는 '그'의 내면이 드러나는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24. [출제의도]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작품의 갈등 상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중략 이후 부분은 공원들이 파업을 선언한 상황에서, 동료 공원들이 공장을 비운 뒤 사장이 들어와 홀로 일하는 가운데 난처함을 느끼는 '그'의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일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재단 칼을 내려놓'는데, 이러한 행동에 이어서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었다.', '공장을 전전하며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는 동안 그가 터득한 것은 동료들과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의외로 배신감에 큰 비중을 두는 고지식한 동료들을 다치게 하면 안 되었다.'라는 서술이 이어진다. 공원들이 파업을 선언한 상황에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곧 동료들에 대한 배신이고, 그러한 배신이 동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에서 자앙은 '상자'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뜯어보자는 다링의 말에, 그러려면 우선 '상자'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주인이 누군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않냐며 다링이 계속 상자를 열자고 유혹하자, 자앙은 '우리가 모른다고 상자 주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라며 거절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로 보아 자앙은 주인의 허락 없이 '상자'를 열어 보는 것이 창고지기인 자신이 지켜야 할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이라 여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그'는 '놀면서 굶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하면서 굶는 것이 견디기' 쉽다고 생각한다. ② (가)에서 사장이 '그'에게 일을 하라고 성화를 부리지도 않았고, '그'가 결국 일을 하지도 않았다. ③ (나)에서 자앙은 상자를 안전하게 여러 차례 나눠서 트럭에 싣자고 이야기했을 뿐, 상자를 트럭에 실어 내보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은 아니다.

2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극의 연출 계획을 적절하게 세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앞부분에서 다링은 상자를 뜯어보자고 먼저 자앙에게 말했고, 주인 허락 없이 뜯어볼 수 없다는 자앙에게 상자의 주인이 어디 있는지 누구인지 거듭 질문을 던져 자앙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모습을 확인한다. 이런 상황으로 보아 ⓔ에서 다링이 자앙의 어깨를 잡으며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라고 말하는 것은, 상자 주인의 정체도 모르니 상자를 뜯어보아도 괜찮지 않느냐며 자앙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의 행동에서 다링이 실망감을 나타낼 이유는 없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기임과 자앙은 매일 단순 업무를 반복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무대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창고 속에서 상자를 쌓고 나르는 행동들을 아주 익숙하고 노련하게 하는 것이 극중 상황에 어울린다. 그런데 ⓐ에서 기임은 손수레에서 상자 하나를 내려놓기 전에 '잠시 망설'인다. 이 망설임은 그의 행동이 원래 정해진 업무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려 주는 효과가 있다. 이를 배우의 몸짓을 통해 부각한다면, 이 연기를 본 관객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② <보기>에 따르면 이 작품의 무대는 창고 내부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창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대 위가 아닌 무대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된다. 트럭이 도착하고 떠나는 소리를 음향 효과로 표현하고, 관객들은 이 소리를 통해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다. ③ <보기>에 따르면 다링은 창고지기들의 단조로운 일상에 변화를 유발하는 인물로, 기임이 잘못 내보낸 상자와 잘못 남겨진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또 상자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진지하게 말하는 자앙에게, 다링은 웃으면서 '그것 참 재미있네요!'라고 말한다. 이는 성격적으로 대조되는 두 인물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 주는데, 따라서 이 부분에서 다링 역을 맡은 배우는 자앙의 진지함과 대조를 이룰 수 있도록 가볍고 명랑한 어조로 대사를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그'는 사장과 자신 사이의 동질성을 확인하면서, 사장 또한 '그'나 동료 공원들과 다를 바 없는 '지하' 생활자임을 느껴 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장은 여기, 지하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서술은, 사장에 대해 동료 공원들이 품었던 생각이 오해라고 여기는 그의 내면을 내비친 대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사장 본인이 한 생각에 대한 서술이 아니므로, 이를 바탕으로 사장의 거만함을 떠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사장이 거만하게 굴었다는 정보는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에게 짜장면을 사 주면서 사장이 보이는 태도나 '그'가 회상하는 내용 등을 보면, 사장이 어떤 특권 의식을 지녔다거나 거만한 인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 '그'는 '지하'에 위치한 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지하'에 위치한 공장으로 출근한다. '원미동 저쪽의 지하에서 웅크려 자다가 간신히 지상으로 올라왔는가 하면 또다시 썩은 공기가 괴어 있는 지하로 내려가야 하는, 그런 삶의 나날이었다.'라는 서술은 이를 보여 준다.

[27 ~ 30] 현대시

➔ **연계 지문 : 박재삼, 「한」 (수능특강 78쪽)**

➔ **박목월, 「이별가」**

27.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화자가 '니'에게 말을 건네고 있으므로 대화적 어조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죽은 이를 다시 만나고자 하는 염원이 부각된다. 이와 달리 (나)는 화자의 독백적 어조로 진술되고 있다.

[오답풀이] ④ 호명이란 대상을 부르는 것을 말한다. (가)의 '니'는 호명이라 볼 수도 있으나, (나)에는 호명이 나타나지 않았다.

28. [출제의도] 작품의 시상 전개 양상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E]에서는 [A]에 제시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것이 만남과 소통을 포기한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A]가 목소리가 바람에 날려서 지워지는 상황을 통해 대상과의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드러낸다면, [E]는 똑같이 목소리가 지워지는 상황인데도 '오냐. 오냐. 오냐.'가 보여 주듯 상대와 어떤 소통이 있었음을 수용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수용적 태도는 [C]에 나타난 '오냐. 오냐. 오냐./이승 아니믄 저승에서라도……'와 이어지는 것으로, 화자는 대상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재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들리지 않는 대상의 말을 저승에서 만나자는 말로 받아들여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③, ④ [C]의 첫 번째 연은 '뭐락카노'를 세 번 반복하고 있고, 두 번째 연은 '오냐'를 세 번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반복된 시구를 통해 두 연이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음이 드러나는데, 이는 두 연 사이의 비약, 즉 '니 흰 옷자라기만 펄럭거리고……'와 '오냐. 오냐. 오냐.' 사이의 비약이 '이승 아니믄 저승에서라도……'로 귀결되는 상황에 대한 이해의 단서를 제공한다. 즉 화자는 대상의 목소리가 바람 때문에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대상의 '흰 옷자라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승 아니믄 저승에서' 만나자는 말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D]는 [C]에서 화자가 이해한 그 말, 즉 '이승 아니믄 저승에서라도'를 반복하여, 사별의 상황을 재회에 대한 믿음으로 수용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29.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다시 말하면'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화자는 이를 '새로 말하면'이라고 함으로써 이어서 진술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은 화자의 서러운 사랑의 정서를 심화하는 효과를 내는 시구이지, 화자의 사랑이 매번 새로워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시구라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② '등 뒤'는 대상에게 가깝지만 돌아보지 않는 이상 대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공간을 환기한다. 화자는 '그 사람'의 눈앞이 아니라 '등 뒤'로나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드러내 놓고 이를 전할 수 없는 애타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③ ㉢은 휘어지는 가지를 환기하는데, 이는 그 가지 끝에 맺힌 열매의 무게를 떠올리게 한다. ㉡ 앞의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라는 표현과 제1연의 '사랑의 열매'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은 대상이 모르는 화자의 애정의 크기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화자가 '그 사람도 이 세상을/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라고 한 것은, 자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안타까움을 드러낸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③ (나)에서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나무로 형상화하면서, '이것이 제대로 벋을 데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다고 한다. 이는 자신의 마음을 살아서는 전달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에서, 이승의 삶에서는 자신의 애정을 끝내 전할 수 없다고 여기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엿볼 수 있다. ④ (나)의 제3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담은 '열매'가 '그 사람'이 '안마당에 심고 싶던/느꺼운 열매가 될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다. 화자는 감나무와 그 열매로 형상화된 자신의 마음을, '그 사람'이 받아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31 ~ 34] 고전소설

➔ **연계 지문 : 작자 미상, 「이춘풍전」 (수능완성 171쪽)**

31.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감사는 남장한 춘풍 아내와 대부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놈이 어떤 놈이관대 임의로 대청에 출입하'느냐고 화를 내며 호령하였다. 춘풍 아내의 정체를 알기 전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처소에 외간 남자가 멋대로 출입하였다고 오해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춘풍의 재산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세전지물 누만금'으로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② 춘풍 아내의 오라비는 등장하지 않으며,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다. 애초에 자신이 비장 노릇을 할 심산이었기에 '없는 오라비 있다 하고' 자기가 남장을 한 것이다. ③ 부인은 고민하지 않고 '크게 웃'으면서 소원대로 해 주겠다고 춘풍 아내의 부탁을 흔쾌히 승낙하였다. ⑤ 감사가 처음에 남장한 춘풍 아내를 외간 남자로 오인하여 화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사정을 안 뒤에는 오히려 '기특하다 칭찬'하였다.

32. [출제의도] 발화나 서술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재물을 다 잃은 춘풍이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구차하게 묘책을 구하는 말이다. 몰락한 현재의 상황을 한탄하며 아내에게 조언을 요청하는 말이며, 집안의 몰락에 대비하지 않은 아내를 원망하는 말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은 '천하 부자'로 불리는 석숭이라도 춘풍처럼 재물을 낭비한다면 남는 돈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춘풍의 낭비를 비판하는 말이다. ③ ㉢에서 춘풍 아내는 대부인에게 일이 잘 되면 '마누라님(대부인님) 덕택'이라며 자신의 인생을 건 계획이 대부인의 협조에 달렸음을 말하고 있다. '의심 없이 하옵소서'라는 말은 자신에게 허튼 뜻이 없으니 믿어 달라는 의미이다. ④ ㉣은 감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춘풍 아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절대 누설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말로, 춘풍 아내가 정체를 들키지 않고 비장으로 활동하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⑤ ㉤에서 비장들이 춘풍 아내를 두고 '잘도 났다'며 그 외모를 칭송하면서도 '수염이 없'다고 아쉬워하는 것은 춘풍 아내가 여자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33. [출제의도] 발화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춘풍 아내가 춘풍의 행실을 지적하며 지금의 상황을 한탄하는 모습은 나타나지만, 스스로를 비웃는 어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A]에서 춘풍 아내는 '여보소, 내 말 듣소.'라고 춘풍을 부르며 발화를 시작하는데, 이는 상대의 주의를 끌고자 함이다. ③ '장부 사업하거드면', '부부 둘이 종신토록 환갑 함께 맞이하면' 등에서, 상대가 취하기를 바랐던 삶의 모습이 가정의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다. ④ 과거에 급제하거나 농업으로 재산을 모으는 삶을 바람직한 삶으로 제시한 뒤 곧바로 부모의 재산을 다 잃고 방탕하게 산 춘풍의 현재 삶을 대조시키고 있다. 이는 춘풍의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⑤ 춘풍의 행실로 인해 부부의 삶이 '이렇듯이 되었'다면서, '어이하여 살잔 말가'라는 물음으로 발화를 마무리함으로써 상대가 초래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표연한 기남자라'는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목소리를 낸 부분으로,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의 시점에서 춘풍 아내의 남장한 모습을 칭찬한 부분이다.

[오답풀이] ① 서술자는 3인칭 시점으로 춘풍의 방탕함을 서술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를 보면 헤어진다'라며 1인칭 서술로 춘풍의 상황을 서술한다. 이처럼 춘풍과 서술자가 구별되지 않고 서술된 대목이 나타나는 것은, 창자가 해설자의 역할도 맡고 등장인물도 연기하는 등 일인 다역을 담당했던 판소리 공연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③ 현재형 시제를 통해 춘풍 아내의 남장이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서술되고 있는데, 이는 창자가 사건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판소리 공연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춘풍 아내의 남복 착용 과정이 나열적으로 제시되며 서사가 잠시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서사 진행을 늦추면서 청중이 흥미로워할 대목을 확장시키는 판소리의 특성과 연결된다.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35 ~ 37] 화법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81쪽**

35. [출제의도] 연설자의 말하기 방법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설자가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여 주장에 대한 주의를 집중시키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하여 주제와 관련된 용어를 설명하고 있다. ③ '우리나라 청소년의 35.8 %'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는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④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조사한'이라고 근거로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⑤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에 대해 순서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연설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된 포스터의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설자는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말하며, 그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37. [출제의도] 연설의 특정 부분의 발화 의도에 따라 친구들을 설득할 말을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설자는 ㉠을 말하기 전에 '가능한 한 ~ 직접 다양한 여가 활동에 도전해' 볼 것을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의 '직접 세상을 마주해 보'라는 표현은 스마트폰과 거리를 둘 것을 강조하는 말로 볼 수 있으므로, ㉠에 주목하여 설득할 말로는 ④가 적절하다.

[38 ~ 42] 작문 - 화법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08쪽**

38. [출제의도] 건의문에 나타난 글쓰기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 건의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고가 운동장만 개방하고 체육관은 개방하지 않아 다양한 실내 운동을 즐길 수 없다는 점과 평일의 개방 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짧아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운동할 수 없다는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건의 내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예상 독자인 교장 선생님도 알고 있는, '저희 구에는 공공 체육 시설이 ~ 주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있다. ③ (가)의 시작 부분에서 예상 독자에게 인사말을 건네고 자기소개를 하고 있으며, (가)의 모든 부분에서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④ '지난 달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에서의 ~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습니다.'라고 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건의 내용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39. [출제의도] <보기>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해 건의문의 일부를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다 많은 △△동 주민들이 다양한 실내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라는 건의 내용을 받아들였을 때 건의 주체에게 도움이 되는 점이 제시되어 있고, '○○고는 주민의 체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학교로 지역 내에서 긍정적 이미지를 얻게 될 것'이라는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는 점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된 [A]의 내용으로는 ③이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건의문의 특정 부분과 관련하여 협상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주민 측'이 ㉠의 해결에 있어 '학교 측'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② '주민 측'은 '학교 측'이 자신들이 제안한 ㉡을 수용할 경우 '그러면 사용료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측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③ '주민 측'은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 오후 10시까지 개방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하여 협상 전에 알아본 다른 학교들의 ㉢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④ '학교 측'은 ㉡과 관련하여 '주민 측'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외부인들이 본관 안으로 들어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⑤ '학교 측'은 '주민 측'이 제안한 ㉢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기 위해 '저희 학교는 학교 담을 경계로 주택이 밀집해 있어 평소에도 소음 민원이 빈번'하다는 자신들이 처한 사정을 제시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협상에 나타난 발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학교 측'은 '주민 측'이 보안 문 설치 방안을 제시하며 체육관 개방을 요구한 데 대해 '다만, 개방을 위해서는 ~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상대방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는 발화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42. [출제의도] 기사문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는 인터뷰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기사에 나타난 인터뷰를 통해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3～45] 작문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04쪽

43. [출제의도] 학생이 떠올린 생각 중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고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비타민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다고 제시되어 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그 종류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44. [출제의도]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는 체외로 잘 배출되지 않아' 과다 섭취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를 근거로 들어 수용성 비타민이 지용성 비타민보다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A]에서 상한 섭취량의 정의를 제시하며 그 목적은 '비타민의 과잉 섭취를 경계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45. [출제의도] 마지막 문단을 고쳐 쓸 때 반영한 조언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마지막 문장의 내용 중 '비타민제를 적정량만큼만, 음식이나 다른 영양제와의 조합에 주의하여 복용'하는 것은 앞 문장의 내용과 유사하다. 하지만 학생은 이 부분을 '이를 잘 지켜'로 고쳐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마지막 문장과 바로 앞 문장을 한 문장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떠냐는 조언은 반영되지 않았다.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35～39] 언어

35.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어절, 구, 절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87쪽

㉠의 '정말 파랗다'는 형용사구이다. 동사구의 예로 ㉣의 '알고 있었다'와 같은 '본용언+보조 용언'의 구성, '많이 먹었다'와 같은 '부사+동사' 구성 등을 들 수 있다.

[오답풀이] ①㉠에는 '가을 하늘'이라는 명사구가, ㉢에는 '어제 일'이라는 명사구가 있다. ③㉡에는 관형절 '개를 안은'이, ㉤에는 인용절 '자신을 기다리지 말라'가 있다. ④㉢에는 부사절 '아무도 모르게'가, ㉣에는 명사절 '누나가 대학에 합격했음'이 있다.

36. [출제의도] 문장 성분과 서술어 자릿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98쪽

'어디 가니?'라는 질문에 '학교에.'라고 대답한 경우, '학교에.'는 '(나는) 학교에 (가)'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가 생략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주어와 서술어는 원칙적으로 문장에 꼭 필요하지만 담화 맥락에 따라 생략되기도 한다.

[오답풀이] ①'꽃이 아름답다.'의 '아름답다'는 주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④'아버지가 끓는 물에 된장을 풀었다.'에서 문장의 성립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분은 '아버지가', '물에', '된장을', '풀었다'이다. ⑤'포도가 제철을 만났다.'의 '만나다'와 '나는 친구와 집에서 만났다.'의 '만나다' 모두 두 자리 서술어이다.

37.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을 참고하여 소리의 길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2쪽

'선남선녀'는 비슷한 요소가 반복되는 구조의 한자어 합성어이므로, 표준 발음법 제6항에 따라 첫음절이 아니더라도 길게 발음한다. '선남선녀'의 첫음절의 '선'과 세 번째 음절의 '선' 모두를 길게 발음한다.

[오답풀이] ④ <보기 2>의 '신다[신:따]'를 참고할 때, '신고'의 '신-'을 길게 발음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제7항 1에 따라 '신으니'의 '신-'은 짧게 발음한다. ⑤'신기다'는 용언 어간 '신-'에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짧게 발음한다.

38. [출제의도] 반의어를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98쪽

'스승-제자'는 관계의 측면에서 대립을 이루는 방향 반의어에 해당하고, '높다-낮다'는 둘 사이의 중간 단계가 허용되며 '매우 높다'와 같이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도 반의어에 해당한다. '출석-결석'은 한쪽을 부정하는 경우 다른 한쪽이 긍정되므로 상보 반의어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삶-죽음'은 상보 반의어에, '덥다-춥다'는 정도 반의어에 해당한다. ②'참-거짓'은 상보 반의어에, '가다-오다'는 방향 반의어에 해당한다. ⑤'쉽다-어렵다'는 정도 반의어에, '오른쪽-왼쪽'은 방향 반의어에 해당한다.

39. [출제의도] 자료를 통해 중세 국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80쪽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 특정한 소리가 출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녀, 뇨, 뉴, 니'를 포함하는 한자어 음절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ㄴ'이 나타나지 못하여 '여, 요, 유, 이'의 형태로 실현된다. '뉘읏디(뉘우치지)'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므로, 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③'듣ᄌᆞᄫᆞᆫ'과 '보ᅀᆞᄫᆞ면'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ᄌᆞᆸ-'과 '-ᅀᆞᆸ-'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현대 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접사와 명사형 어미의 형태가 모두 '-(으)ㅁ'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접미사 '-(으)ㅁ'과 명사형 전성 어미 '-움'이 쓰였다. '거름'과 '거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40～43] 매체－언어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27쪽

40.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와 (나)는 모두 업사이클이 일반적인 재활용보다 에너지와 자원을 아낄 수 있고 재활용하기 힘들었던 물건들도 재활용이 가능해진다는 업사이클의 장점을 드러내고 있으나 단점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편파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므로 업사이클의 단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가)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사문으로 작성자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②(나)는 '슬라이드 2'에서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출처를 밝히고 있다. ③(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지 않다. ⑤(가)와 (나)는 모두 이론을 다루고 있지 않다.

41. [출제의도] 매체 자료에 반영된 생산 계획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슬라이드 3'에서 화살표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재활용과 업사이클의 진행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업사이클의 산업의 성장 단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42. [출제의도] 특정 매체에 드러난 언어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폐건축물을 활용하여 만든'에서 연결 어미 '-여'는 앞 절이 뒤 절의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43. [출제의도] 생산 목적을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적절하게 보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표에 활용하기 위해 제작하는 것이므로, 업사이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학급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기 위해 '슬라이드 B'를 활용할 수 있다.

[44～45] 매체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17쪽

44.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블로그 게시 글은 '전체 공개'된 것이므로 정보 제공자가 정보 공개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고 학생'이 아닌 '솜이'가 '검색하다가 우연히 들어와 봤어요'라고 댓글을 남긴 것을 통해, 제한된 수용자만이 정보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링크 클릭해서～영상도 열심히 제작해 보자.'라는 '경아'의 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②'회의 내용을 고려해서 영상의 주요 장면과 그에 대한 설명을 담은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볼게'라는 '도하'의 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정보 수용자인 '현아'가 '이 게시 글, 내 SNS로 공유해 갈게!'라고 댓글을 남긴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④(나)에서 정보 제공자인 '도하'와 정보 수용자인 '솜이'가 댓글을 통해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5. [출제의도] 영상 제작 계획을 스토리보드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댓글의 내용을 담은 말풍선이 인물 주변에 점차 채워지게 한 것은 '한 사람에게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시각적으로 연출하기 위한 것이지 '악성 댓글을 작성하고 있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연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